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 I. 머리말
- II. 세종과 불전
- III. 세종의 불교관
- IV. 세종의 불교관과 치국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2007년도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며, 김종명,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발표회,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 pp. 59-96 및 Kim Jongmyung, "King Sejong's Buddhist View," presented at the 5th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KSAA) Biennial Conference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2007b, July 12-13)의 개정본이다. 이 논문에서의 "유교 정치"란 '세종이 살던 유교 사회에서 그가 펼친 정치'를 뜻한다.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세종(1418-50)의 불교관과 유교사회에서 그의 치국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종과 관련된 불전 및 『세종실록』을 분석하고, 이 자료들에 나타난 세종의 불교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종의 불교 이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그의 불교관이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교에 대한 세종의 일차적 관심은 교학보다는 인과설에 바탕을 둔 공덕 짓기에 있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유교 사회의 백성들에게 효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인과설에 대한 이해는 초기 불교의 인생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세종은 많은 유신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사 행위를 추진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불교관 관철을 위해 선위 시도 등의 정치적 조치까지 취하였다. 세종의 불사는 그 자신의 견해,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직급 및 소속 부서, 재정원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행사로 나타났다. 세종의 불교관은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어도 세종은 그의 치세 마지막까지 강

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공덕, 불교관, 『석보상절』, 세종, 『세종실록』, 『월인천강지곡』, 유교정치

I. 머리말

조선시대(1392-1910) 역사는 한국 사학사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그 큰 이유는 조선 500여 년에 걸친 기간을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¹⁾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포함하여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1418-50)²⁾은 승유배불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뿐 아니라, 한국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세종은 필요할 경우 독단과 기만까지도 불사한 현실적 정치가³⁾기도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사회에

1) 김자현, 「조선시대 문화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료와 접근방법에 대하여-」,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모색』(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p. 122

2) 세종에 대한 연구업적들에 대해서는 Kim Jongmyung, "King Sejong's Buddhist Faith and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A Historical Perspective," *Korea Journal* 47-3 (Autumn 2007a), pp. 134-59

3) 박현모, 「세종의 공론형성과 국가경영」, 정윤재 외, 『세종의 국가경영』(서울: 지식산업사, 2006), p. 60

서 그의 치국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의 제1장 머리말에 이어, 제 2장 “세종과 불전”에서는 세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한글 번역본을 포함한 불전들이 검토될 것이다. 제3장 “세종의 불교관”에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과 불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종이 이해한 불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세종이 이해한 불교의 내용을 초기불교⁴⁾와 비교함으로써 그의 불교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4장 “세종의 불교관과 치국”에서는 유교 군주임을 자임한 세종의 불교관이 당시의 유교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이 검토될 것이다.

인도의 초기불교는 자력에 의해 존재에 대한 바른 알음알이를 얻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 가르침이었다. 반면,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4세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불교는 주로 타력적 기복종교⁵⁾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자력을 강조한 인생교육제도였던 불교가 누구에 의해, 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타력적 기복종교로 변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과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한국불교 나아가 동아시아불교의 성격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전통 한국에 있어서 불교를 포함한 국가적 관습의 변화는 국왕의 뜻에 달려 있었다.⁶⁾ 따라서 한국 역사

4) 초기불교의 내용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다양하지만, 석가모니의 1세대 제자의 활동기까지, 즉, 그의 사후 100년간의 불교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에 따른다.

5) 기복불교의 기원, 성격,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특집」 기복불교를 말한다, 『불교평론』 제7호(2001년 여름호)에 게재된 일련의 게재문을 참조. 기복불교 전통에 대한 현대학승의 비판적 논문으로는 진휴,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에 대한 고찰」, 2008년 제4회 전국학인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참조.

6) 覺訓, 『海東高僧傳』, 『韓國佛教叢書』, 第六冊(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pp.

상 국왕의 불교관이 어떠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성격 이해를 위한 필수 과제다.⁷⁾ 기존의 관련 연구 성과들⁸⁾에서는 주로 정권과 불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많았다. 반면, 이 논문의 주제인 국왕이 실제로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러한 이해가 그의 치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었다. 해외의 한국불교학 연구 현황도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⁹⁾

96c3-4; 成倪, 『慵齋總話』, 남만성 역 (서울: 대양서적, 1973), 274b13.

7) 4-10세기까지 전개된 한국 국왕들의 불교관에 대해서는 Kim, Jongmyung, "Korean Kings' Buddhist Views: An Examination-From the Fourth to the Tenth Centuries-", presented at the XV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Emory University, Atlanta, U.S.A., June 23-8, 2008 참조.

8) 『세종연구자료총서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세종연구자료총서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李哲教·李東圭 共編, 『韓國佛教關係論叢綜合目錄』, 전3권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2); 『불교관계논저데이터베이스 2006』 (서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06) 등은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집들이다. 특히 세종 대의 제도 정비, 불사 개설 및 대외 관계와 불교 등에 대해서는 한우근, 『世宗祖에 있어서의 對佛敎 施策』, 『震檀學報』 25(서울: 震檀學會, 1964), pp. 65-154; 세종조의 억불 정책에 대해서는 韓基先, 「朝鮮朝 世宗의 抑佛에 대한 研究」, 『弘益史學』 3(1986); 李逢春, 「朝鮮 世宗朝의 抑佛政策과 그 變化」,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 권 상 (1992); 조선 정부의 불교 정책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Robert E. Buswell, Jr., "Buddhism Under Confucian Domination: The Synthetic Vision of Sōsan Hyujōng,"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eds.,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on Kore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134-143; 세종 대의 불교에 대해서는 Kim 2007a: 139-143; 유교정치를 추구한 세종이 불교를 신앙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한 측면을 연구한데 대해서는 부남철, 「세종의 국가경영에 있어서 불교와 유교: 신앙과 정치 사이의 긴장과 통합」,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2005. 5. 27), pp. 175-198 참조.

9) Jorgensen, John, "Trends in Japanese Research on Korean Buddhism 2000-2005,"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rch 2006), pp. 9-26; McBride, Richard D., II,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Retrospective and Recent Trend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rch 2006), pp. 27-48; Mohan, Pankaj

이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은 『세종실록』,¹⁰⁾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등 세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료들이다. 『세종실록』은 그의 정치관¹¹⁾과 불교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 연구에서는 『세종실록』에 나타난 본 논문의 주제 관련 기록들을 연대별로 검토할 것이며, 1435년부터 1450년까지의 기간에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435년 5월의 기록¹²⁾에 의하면, 세종은 인과설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1440년에 그는 부처를 공경할 것임을 공언하였다.¹³⁾ 1443년은 세종에 의해 한글이 창제된 해(28/9/29)¹⁴⁾인데, 이 때의 세종도 불교

N, "Beyond the "Nation-Protecting" Paradigm: Recent Trends in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Buddh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rch 2006), pp. 49-67

10) 『세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일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한글로 번역되어 전산화 되어 있으며, 이 국역 웹본 실록(<http://sillock.history.go.kr>)의 큰 장점은 실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있다. 그러나 이 전산화본에는 오자나 탈자 등의 오류가 적지 않으므로 이용 시 주의를 요할 뿐 아니라, 전면적 수정도 요청되고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와 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p. 193-243 참조.

11)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한글 창제와 보급과정을 중심으로 세종의 정치 리더십을 검토한데 대해서는 정윤재, 「세종의 "보살핌"의 정치리더십: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발표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 pp. 7-20 참조.

12) 若緣此善因, 上可追福先王, 普利人天, 饒益無限 凡諸臣民, 隨其所作, 果報之應, 盡如佛說, 不必贅及(17/5/20): 이 좋은 인연(사리각 중수)을 맺는다면, 위로는 신앙의 명복이 되고, 사람과 하늘을 널리 이롭게 하여, 도움 되는 것이 한량없을 것이다. 여러 신민들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과보의 응험이 모두 부처의 설과 같이 될 것은 덧붙여 말할 것도 없다.

13) 부남철, 앞의 논문, p. 180

14) 재위 년/월/일. 이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년/월/일은 『세종실록』의 것을 뜻한다.

신자로 나타난다.¹⁵⁾ 그리고 1446년 한글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었을 때의 세종은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그의 신불 태도는 그가 죽은 1450년까지도 지속되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불전들 가운데서 세종의 불교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책들인데, 전자는 세종의 명을 받은 그의 아들 수양대군(후의 세조, 1455-68)이 편찬한 것이며, 후자는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다.¹⁶⁾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에 대한 찬사며, 별도의 불전은 아니다.¹⁷⁾ 또한 이 두 책은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전기들이기 때문에 이 두 책에 담긴 내용 자체보다는 이 책들에 인용된 불전들이 더욱 중요하다.¹⁸⁾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책들에 인용된 불전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 전체를 통해 조선시대 연구는 상당한 학문적 축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시대의 불교에 관한 연구 성과도 그 토대를 축적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¹⁹⁾ 세종과 세종시대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도 풍부한데, 2006

년대 중반의 한 조사에 의하면, 단행본 23권, 박사논문 2편, 연구논문 196편에 달한다.²⁰⁾ 이제까지 유교정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경서 읽기와 해석의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다.²¹⁾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불교관과 유교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역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는 이미 다 공개된 것이며, 새로운 사료의 출현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가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에 의해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의 내용적 특징 중의 하나는 세종의 불교 이해 자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도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의 특징적인 사상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²³⁾ 특정인의 불교 이해 여부도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여부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석가모니의 실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토론해 왔다. 그러나 동서양의 학자들은 그의 기본 가르침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성제(四聖諦), 인연설(因緣說), 삼법인설(三法印說), 십이처설(十二

15) 金相鉉, 「朝鮮佛敎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부록 1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 완간기념 학술세미나,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불교』, 『佛敎學報』 제39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pp. 265-71

16) 『월인천강지곡』이 세종의 어제라 하지만, 이는 주관자라는 뜻일 것(世宗, 『月印千江之曲』, 南廣祐·成煥甲[주해] (서울: 螢雪出版社, 1978), p. 15)이란 견해도 있다.

17) 허웅, 「역주 월인석보 서」, 『역주월인석보 1·2』(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p. 35

18)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배경과 구송 방식」(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70

19) 이와 관련된 연구사에 대해서는 Kim 2007a, pp. 134-59 참조. 이 논문의 개정본은 김종명,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東洋政治思想史』 제6호 1권 (인천: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7), pp. 51-68에, 제 개정본은 김종명,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정윤계 외, 『세종 리더쉽의 형성과 전개』(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189-224에 계수록 되었다.

20) 박현모, 앞의 논문, p. 222

21) 정윤계, 「세종의 국가경영 연구: 리더십 接近에 의한 世宗時代 新研究」,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 26, p. 39

22) 정두희, 「개인으로서의 '나'의 발견과 朝鮮前期史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모색」,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p. 112

23)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도서출판 새터, 1995), p. 10; 김 혜순,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韓國佛敎學』 46 (서울: 韓國佛敎學會, 2006), p. 393

處說), 사온설(五蘊說), 업보설(業報說) 등²⁴⁾이며, 현대 한국불교계에서는 여기에 중도(中道), 육바라밀(六婆羅蜜)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²⁵⁾ 특히 사성제는 모든 불교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²⁶⁾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의 불교 이해도 이러한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 여부에 의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방법론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일차자료의 내용 가운데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검토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성을 지양하고, 주제와 관련된 특정 국왕 시대 전체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 예들이 있다.²⁷⁾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본고의 주제를 검토하였다.

24) 木村泰賢, 『原始佛教思想論』, 朴京俊 譯 (서울: 경서원, 1992), pp. 97-358; 方立天, 『불교철학개론』, 유 영희 옮김 (서울: 민족사, 1992), pp. 21-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1999), pp. 71-123; Mitchell, Donald W, *Buddhism: Introducing the Buddhist Experience*,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33-64; 김 혜순, 「불교사상 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韓國佛敎學』 46 (서울: 韓國佛敎學會, 2006), pp. 387-419; 김 혜순 · 백 경임, 「어머니의 불교이해도와 집착이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宗教研究』 57(익산: 韓國宗敎學會, 2009년 가을), pp. 253-274.

25)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전국선원수좌회, 『개정판 간화선: 조계종 수행의 길』 (서울: 조계종 출판사, 2008), p. 94

26) 호진, 「초기불교의 선사상과 실천」, 『참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 동화사, [불기 2548년 2004]), pp. 17-33

27) Allen, J. Michael, "How Early is Korean Modernity? The 'Early-Modern' in Korean Historiography," *On Historiography of Korea: Methodologies and Strategies*,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6. 19-20, pp. 157-167; Kim 207a, pp. 134-159; 김종명, 「한국불교사 연구의 일 방법론 모색」, 국제한국사학회 월례 발표회, 숭실대학교, 2009. 11. 21, pp. 1-15.

II. 세종과 불전

세종은 1443년 한글을 창제하고, 1446년 이를 반포하였는데, 그 후, 이 언어로 번역된 책의 대부분은 불교 관련 서적들이었다.²⁸⁾ 세종은 그의 비 소헌왕후가 1446년에 세상을 떠나자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인 『석보상절』을 1447년 짓게 하였다. 그는 『석보상절』을 보고 석가의 공덕을 찬송한 노래인 『월인천강지곡』도 직접 지었다.²⁹⁾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한문으로 엮어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세종의 아내인 소헌왕후는 1446년에 죽었다. 세종은 그의 아들인 수양 대군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명하여 왕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전을 짓도록 하였으며, 그 책이 1447년에 완성되자, 그 서명을 『석보상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는 그 책이 편찬되게 된 동기가 기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석보상절』은 처음엔 한문으로 지어졌으며, 거기에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림이 추가된 후, 다시 일반인들의 불교 이

28) 姜信沆,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1987), p. 223; 金相鉉, 앞의 논문, p. 265. 한국문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Kim, Jongmyung, "Korean, Buddhist Influences on Vernacular Literature in." In *Encyclopedia of Buddhism*, Robert E. Buswell, Jr.,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2004), pp. 439-441 참조.

29) 이러한 사실은 『월인석보』 권1 「석보상절서」 등에 나타나 있다: "...頃因追薦 爰采諸經 別爲一書 名之曰釋譜詳節 既據所次 繪成世尊成道之迹 又以正音 就加釋解 庶幾人人易曉而歸三寶焉..."근간의 추도의 일로 인하여 이에 여러 [불]경에서 가려내어 따로 책 한권을 만들고 그것을 석보상절이라 하였다. 이미 차레지어진 바에 의거하여 세존이 도를 이룬 자취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 삼보에 귀의하기를 바라다니 ([世宗] 1978, pp. 13-14 참조).

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다시 번역되었음³⁰⁾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한글 창제 후 지어진 최초의 산문 작품인 동시에 한국 최초의 한글 번역 불전으로서 조선 초기의 불교를 조직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불교학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석보상절』은 원래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으며, 이 책의 편찬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과 김수온(金守溫, 1410-81)의 협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³¹⁾

『석보상절』 상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은 석가모니의 전생의 가계, 수미산, 전륜성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의 주 내용은 석가모니의 가계와 탄생, 불교의 중국 전래, 팔십종호, 십지, 중국 불교의 시작, 도가와와의 대결과 불교의 승리 등이다; 제7권은 출가하여 석가모니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설법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제9권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의 죽음과 여성 출가 허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보상절』의 하권 중 제3권은 석가모니의 탄생, 교육, 결혼, 출가, 수행, 정각 등, 제6권은 전법, 석가모니의 아들과 일가의 출가, 교단 형성, 제23권은 사리, 삼보, 사성제, 삼계, 정·상·말법, 24권은 경전 결집, 중국 6조사, 아육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불전들은 『대운륜청우경』(大雲輪請雨經), 『반야경』(般若經), 『방등경』(方等經),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승만경』(勝鬘經), 『십일면관자재경』(十一面觀自在經), 『아함경』(阿含經), 『입능가산경』(入

楞伽山經), 『화엄경』(華嚴經),³²⁾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또는 『법화경』,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약사경),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석가씨보』(釋迦氏譜) 등³³⁾이었다.

세종 30년(1448)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지은 찬불가의 제목인 동시에 서명이기도 한데,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은 후, 친히 한글로 지은 것³⁴⁾이었다. 이 책은 훈민정음 제정 후 그 문자로 간행된 두 번째 문헌이며, 부처의 가르침의 공덕을 찬송한 노래로서,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상권이다.³⁵⁾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은 삼계, 삼보, 삼독, 사과위, 사선천, 정각, 둔교, 점교, 사제(四諦), 『승만경』, 『십지경』(十地經), 『화엄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은 「묘인연지곡」(妙因緣之曲), 「의정혜지곡」(依定慧之曲),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讚法身), 「찬약사」(讚藥師), 「찬미타」(讚彌陀), 「찬삼승」(讚三乘), 「찬팔부」(讚八部) 등의 찬불가들도 친히 지었으며,³⁶⁾ 『증도가남명계송언해』(證道歌南明偈頌諺解)도 펴내었다.³⁷⁾ 또한 『세종실록』(32/1/4)에 의하면, 세종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多羅泥經)을 1450년에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승려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우게도 하였다. 세종은 신하들로 하여금 『석가보』

30) 허웅, 앞의 서, pp. 25-26

31) 金英培 編譯, 『釋譜詳節』上 (서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86), pp. 9-24

32) 金英培 編譯, 『釋譜詳節』下 (서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86), pp. 120-127

33) 金英培, 앞의 책 上, pp. 16-17

34) 허웅, 앞의 서, p. 35

35) [世宗] 1978, pp. 16-19

36) 金守溫, 『拭疣集』, 『韓國文集叢刊』9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77b4-8.

37) 全觀應, 『佛教學大辭典』(서울: 弘法院, 1996), p. 1470a.

(釋迦譜) (28/12/2), 『월인석보』(月印釋譜) 등의 불전을 편찬하게도 하였으며, 승려인 신미(信眉)와 그의 동생으로서 친불교 유학자였던 김수온으로 하여금 『삼불예참문』(三佛禮讚文)을 짓게도 하였다. 또한 세종은 후에 문종(1450-52)과 세조가 된 그의 왕자들로 하여금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도 한글로 번역케 하였다.³⁸⁾

아래에서는 이 자료들과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세종의 불교관을 검토해 보자.

III. 세종의 불교관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는 영향 인사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먼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통설과는 달리 재위 초기부터 호불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³⁹⁾ 그러나 세종의 불교관은 이중적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유교 지배 사회에서 스스로를 유교 정치를 표방한 군주로 칭하면서,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재위 초기의 세종은 불교를 청순한 삶, 전통적 관습의 관점에서 이해하였으며, 이 시기의 세종은 그의 신불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인과설(因果說)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위 후기에 세종의 불교관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창제 즈음 그는 인과설도 받아들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세종의 불교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성은 있으나, 그와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그의 불교관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영향을 미친 사람들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은 왕실 가족, 승려 및 호불 유학자들로 나타난다.

(1) 왕실 가족

세종 시대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왕실 가족들 사이에 불교 신앙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이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은 승려가 되었으며, 세종의 아들들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1448년의 기록에 의하면, 수양대군과 양평대군은 아버지인 세종의 불교 신앙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해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30/8/5). 수양대군을 포함한 왕족들은 높은 수준의 불교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수양대군은 “석씨의 도가 공자의 도보다 나은 것은 단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옛 유학자들이 ‘불교에서는 비록 몸을 꺾고, 태우고, 찢고, 갈려고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한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불교는 유교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

38) 姜信沆, 앞의 책, p. 278

39) Kim 2007a, pp. 139-143

40) “釋氏之道過孔子, 不啻霄壤. 先儒曰: ‘雖欲挫燒春磨, 無所施.’ 此未知其理而妄言者也” (30/12/5).

로 간주하였다. 또한 “유수양대군은... 불교를 깊이 믿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불교는』 공자의 도보다 나으며, 정자(1033-1107)와 주자(1130-1200)가 그르다고 한 것은 부처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⁴¹⁾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수양대군은 정자와 주자를 포함한 유학자들의 불교 이해는 틀렸으며, 그들의 불교 지식은 알기도 한 것으로 파악⁴²⁾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승려

세종은 당대의 대표적 승려인 기화(己和, 1376-1433)에게 설법을 청하는 등 그와도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⁴³⁾ 따라서 세종과 기화 사이의 불교사상적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세종실록』에는 세종과 기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만우(萬雨), 신미(信眉) 등은 『세종실록』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승려들이다. 그러나 만우가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 신미의 역할은 중요하다. 즉, 세종은 1446년에 신미를 처음 만났는데(1/4/5), 1448년에는

세종이 그를 총애하고(30/9/8), 1450년에는 그를 존경하였다(1/4/6). 그리고 신미는 세종에 의한 한글 창제 시 주역을 담당하였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⁴⁵⁾

(3) 호불 유학자

호불 유학자 중 김수온은 세종대 왕실의 불교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449년의 기록⁴⁶⁾처럼, 김수온은 그의 형 신미와 함께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김수온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김수온은 그의 형 신미보다 더 일찍 세종과 관계를 맺었으며, 세종이 불사에 관심을 두게 하는데도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석보상절』 출판의 초기 단계에는 실무 책임도 지고 있었다;⁴⁷⁾ 당시 불교 신자들의 불교에 대한 지식은 석가모니의 전기에 그칠 정도였으나, 김수온의 불교 이해는 다른 이들보다 높았다;⁴⁸⁾ 그리고 김수온은 1448년의 기록⁴⁹⁾처럼, 왕자들의 불교신앙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1) 琛... 惑信釋教, 嘗謂: “勝於孔子之道, 程 朱非之, 不深知佛氏者也(31/7/1).

42) 조선시대의 배불론은 퇴계 이황(1501-70)에 의해 정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것은 적어도 조선시대 말까지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극단적 배타성을 특징으로 한 그의 배불론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명, 「퇴계의 불교관 - 평가와 의의」, 『宗教研究』 41 (성남: 韓國宗敎學會, 2005), pp. 121-146

43) Muller, Charles A,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 27

44) 세종의 불교 이해에 미친 기화의 사상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화의 불교사상 연구에 대해서는 朴海鐘, 「己和의 佛敎思想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哲學博士學位論文, 1996) 참조. 특히 기화의 사상적 특징인 돈오점수에 대해서는 43-69쪽 참조.

45) 이재형,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과 불교」, 《법보신문》 2004-09-29/773호. 이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기대된다.

46) 上之留意佛事, 守溫兄弟贊之也(32/2/25): 국왕이 불사에 뜻을 둔 데는 수온의 형제가 도운 것이다.

47) 李逢春, 「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第五輯(서울: 韓國佛敎學會, 1980), pp. 41-70

48) 『문종실록』에 의하면, 김수온은 “『능엄경』은 『중용』보다 낫다”(楞嚴經過於中庸)(문종 즉위년/4/11)고 하면서, 불경을 유교 경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49) 守溫黃緣左右, 交結首陽 安平兩大臣, 反譯佛書... 又常誘大臣曰, “『大學』 『中庸』 不及『法華』 『華嚴』 微妙”(30/9/8): 수온은 좌우로 인연을 맺어 수양과 안평 양 대군과 교제를 가졌으며, 불교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또 항상 대군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대학』과 『중용』은 『법화경』과 『화엄경』의 정묘함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왕실 가족, 승려, 호불 유학자의 영향 아래 형성된 세종의 불교관은 그와 관련을 가진 불전과 『세종실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 불전과 세종의 불교관

세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불전과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불교관은 효, 인과, 망자 추선, 치병, 정토왕생, 악업제거, 기우 등 공덕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 인용된 불전들을 통해 세종은 석가모니의 일생과 사성제 등의 일부 불교 기초 교리, 대승불전 사상, 효를 포함한 중국불교의 전개 등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이 초기 불교 이해가 정확하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 인용된 불전 가운데, 『반야경』, 『승만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등은 대승불교 전통에서 중시되어 온 불경들이며, 각각 공(空), 여래장(如來藏), 존재의 관계성, 제법실상(諸法實相)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이 각 불전의 교학적 가르침에 관심을 두었다는 문헌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석보상절』의 성격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며, 그 내용도 비합리적인 요소들로 주로 구성⁵⁰⁾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은 『석보상절』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월인천강지곡』이 신이성,

50) 김기중, 앞의 논문, pp. 48-54

재미 및 효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석보상절』과의 차이점이다.⁵¹⁾ 특히 「팔상도」(八相圖)는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법」(傳法)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전법」 부분은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법문, 출가 및 석가모니의 전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르침은 불보살의 기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⁵²⁾

어떠한 종류의 불전이든 특정 불전이 채택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당시의 신앙형태나 사상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⁵³⁾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판이 많이 된 책일수록 그 책의 중요성은 그 만큼 큰 것으로 간주 된다(고익진 1975: 171). 이런 관점에서, 한국불교사에서 『법화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중국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지은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了解, 1119-25)는 13세기 중기에 한국에 소개된 후, 한국에서 유행한 『법화경』의 모본이 되었다. 그러나 계환의 책은 중국에서는 주요 불전도 아니었으며, 유행한 불전도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사정은 달라, 이 책은 14세기 초기의 고려에서부터 조선말까지 유행하였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 책이 유행한 이유는 그 책이 가진 통불교적 사상, 공덕 강조, 단순한 내용, 후대의 용이성⁵⁴⁾ 때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화경』은 조선시대의 망자 추선을 위한 필수 불경이었

51) 김기중, 앞의 논문, pp. 75-80

52) 김기중, 앞의 논문, p. 10

53)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 간행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 7

54) 고익진, 「법화경계환해의 성행 내력」, 『佛敎學報』第十二輯(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5), pp. 171-191

는데,⁵⁵⁾ 이 경은 세종 대에도 유행하였다. 그 이유는 이 경이 공덕을 강조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이 경은 『석보상절』에 포함되었다.⁵⁶⁾ 『법화경』은 『월인천강지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제법실상, 즉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강조한데 있다.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에 인용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신비적 요소와 관련된 것⁵⁷⁾이었다.

『지장보살본원경』⁵⁸⁾과 『대방편불보은경』 등은 위경(僞經)이다.⁵⁹⁾ 그리고 『석가보』와 『석가씨보』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들로서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들이다. 특히 조선조 최고의 사회윤리였던 효는 『석보상절』과 그의 친찬인 『월인천강지곡』에서도 강조된 개념이었다. 한국의 위경인 『목련경』(目連經)과 중국의 위경인 『대방편불보은경』은 『석보상절』⁶⁰⁾과 『월인천강지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효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대방편불보은경』은 『석가보』와 『법화경』 다음으로 인용된 분량이 많다. 『월인천강지곡』에는 『아미타경』(阿彌陀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및 한국의 위서인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불서들은 모두 정토왕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업장 참회와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위서인 『지장보살본원경』은 『월인천강지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권의 위서 축약 번역본은 『석보상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운륜청우경』은 전통 것들이기우 의례의 기본서였는데, 이 책은 『월인천강지곡』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축약 번역본은 『월인석보』에 수록⁶¹⁾되었다.

세종과 관련된 불전의 상당수는 망자 추선의 산물이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소헌왕후의 추도를 위한 불사에서 음성 공양을 위해 편찬된 책들이었다. 특히 『법화경』은 세종 대에도 유행하였는데, 『석보상절』에는 『법화경』 전권이 인용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석보상절』 전체의 약 1/3에 달한다. 『증도가남명게송언해』와 『월인석보』도 각각 소헌왕후와 왕실 가족의 추선을 위해 출판된 책이었다.

「묘인연지곡」을 비롯하여 세종이 지은 찬불가들의 내용은 주로 선행, 인과, 참선, 지혜, 불·보살 찬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도가남명게송언해』는 세종이 중국 당나라 현각(玄覺, 647-712)의 『증도가』(證道歌)에 송나라의 남명천(南明泉)이 노래를 붙인 것의 일부를 번역한 것인데, 그 핵심은 불성(佛性)의 깨달음을 강조한데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치병과 재난으로부터의 구제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금강경오가해』는 존재의 본질이 공함을 강조한 책이다. 따라서 세종은 불성, 공(空) 등의 중요 불교 개념에 대한 지식도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중요 불전들이 망자 추선 등의 공덕 짓기의 산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세종이 불교 교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5)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 (1918; 서울: 민속원, 2002), p. 561

56) 김기중, 앞의 논문, pp. 49-50

57) 김기중, 앞의 논문, pp. 75-79

58) 鄭承碩 編, 『佛典解說事典』(서울: 民族社, 1989), p. 313

59) 중국의 불교 위경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Buswell, Robert E. Jr., ed., *Chinese Buddhist Apocryph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참조

60) 金英培, 앞의 책 上, p. 108; 金英培, 앞의 책 下, pp. 206-207

61) 김기중, 앞의 논문, pp. 51-53

『약사경』에서 약과 약사는 각각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석가모니를 지칭하며, 이 경의 핵심은 깨달음을 강조한 데 있다. 그러나 이 경은 한국에서 7세기 초반 이래 치병 목적으로 사용⁶²⁾되었으며, 이 『약사경』의 완본은 한글로 번역되어 『월인천강지곡』에 포함⁶³⁾되었다.

세종은 그의 재위 후반기 초인 1435년에는 인과설을 믿고 있었으며, 1449년 2월의 기록⁶⁴⁾과 7월의 기록⁶⁵⁾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불교를 좋아하는 국왕인데”(28/10/4)란 기록처럼, 당시의 세종은 이미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따라서 1440년대에는 인과설을 바탕으로 한 세종의 신불 정도는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종과 관련된 불전들에 의하는 한, 세종의 불교관은 공덕 중심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이유는 세종 치세 후기의 가족사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종은 그의 왕후와 아들들이 죽자, 정신적 안정을 위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도움으로 궁전 옆에 사찰을 세웠다. 세종은 또한 그의 불사에 관한 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실은 1448년부터 1450년까지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448년의 기록

(30/7/19)에 의하면, 정인지(1396-1478)는 세종이 불사에 관한 한,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세종은 영의정 황희의 간언도 용납하지 않았다.

세종의 불교관의 핵심은 공덕 짓기에 있었으며, 그것은 인과설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출가생활을 고수하려던 중국의 승려들은 효사상이 강조되던 사회에서 공격을 받게 되자, 업설(業說)을 중국의 전통적 효사상과 결합시켰다.⁶⁶⁾ 이 전통은 한국에도 전해졌으며, 4세기 중반 한국에 불교가 소개된 이래, 그 이후 전개된 불사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세종의 업설 이해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석가모니에 의하면, 업은 행위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행위자의 상태, 행위 환경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관계한다. 그리고 그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 그 업의 영향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유 의지와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들은 인도 철학사와 인도종교사에서 불교가 기여한 가장 중요한 공헌 중의 한 부분이며, 불교의 업설이 윤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⁶⁷⁾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7세기의 중국 선승들도 극락왕생의 교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⁶⁸⁾ 따라서 세종의 불교에 대한

62) 통일신라기(668-935)에 팔공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약사신앙의 성격 분석에 대해서는 김종명, 「팔공산의 약사신앙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대구경북학 연구논총』 제1집(대구: 대구경북연구원, 2006), pp. 267-299

63) 김기중, 앞의 논문, pp. 50-51

64) 上連喪二大君, 王后繼薨, 悲哀憾憤, 因果禍福之說, 遂中其隙(31/2/25): 국왕[세종]은 두 왕좌를 연이어 잃었으며, 이어 왕후도 죽었다. 그가 슬픔에 잠기자, 그에게 마침내 인과화복설이 그 틈에 맞게 되었다.

65) 天堂地獄, 死生因果, 實有是理, 決非虛誕 不知佛氏之道而斥之者, 皆妄人, 吾不取也(31/7/1): 천당과 지옥과 죽고 사는 것과, 원인과 결과는 실로 이치가 있는 것이며, 결코 허황한 것이 아닌데, 불교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는 모두 망령된 사람들이므로, 내가 따르지 않는다.

66) 김 종명, 『한국중세의 불교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p. 226-229

67) 길 회성,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상호의존의 윤리」, 『西江人文論叢』 第11輯(서울: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院, 2000), pp. 51-72

68) 이부키 아츠시,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禪의 역사』, 최연식 옮김(서울: 대숲바람, 2005), p. 66

이해 수준이 높았다⁶⁹⁾는 주장은 현존 문헌적 증거에 의하는 한 재검토를 요한다.

IV. 세종의 불교관과 치국

조선조는 유교를 개국의 국시로 하였으나, 사상적으로 세종시대 는 유교화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국가경영의 철학과 방식 에서도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난 시기였다.⁷⁰⁾ 특히 세종은 정치 행정 면에서 조선적 유교화의 틀을 정립한 군주였다.⁷¹⁾ 그러나 세종이 구상한 유교국가의 모습은 성리학이 조선의 정치사회를 주도하였던 시기의 유교국가와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고, 그것은 인사와 제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⁷²⁾ 특히 세종이 펼친 불사의 성격과 불사와 관련된 세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종의 불교관이 당시의 유교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종은 자신이 살던 유교 사회에서 스스로가 유교 군주임을 자임

하였으나, 공덕 중심의 세종의 불교관은 그가 살던 유교사회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세종실록』을 통해 사관들은 세종의 불사 활동을 유교적 입장에서 축소시켰다(32/2/22). 그리고 세종은 공식적으로는 유교를 좋아했으나, 사적으로는 불교에 관심이 있었다(이성무 2001: 31-2)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세종의 불사를 사적 생활이란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세종을 포함한(남희숙 2004: 9; 박현모 2005: 39-62) 조선 초기의 국왕과 왕족들의 호불은 정치의 한 부분(금장태 1999: 580-1)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1. 세종 대 불사의 성격

세종은 민생해결과 소통을 통한 교화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국가 경영을 하였으며,⁷³⁾ 불전들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출판 또는 번역케 하였는데, 이는 그의 한글 창제 취지와도 잘 부합한다.⁷⁴⁾ 그리고 세종은 자신의 불사가 유신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정치적 대응을 통해 풀어 나갔다. 효제를 중시한 유교국가인 조선왕조는 양로정책을 적극 펴 나갔는데, 이 정책은 세종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세종의 유교정치 이념과 관계를 가

69) 崔正如, 「世宗朝 亡妃追善의 周邊과 釋譜 및 讚佛歌制作」, 『啓明論叢』 5 (대구: 계명대학교, 1968), p. 39

70) 朴炳蓮, 「세종조 정치 엘리트 양성과 인사운용의 특성」,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9, p. 51

71) 朴炳蓮, 앞의 논문, p. 61

72) 朴炳蓮, 앞의 논문, p. 52; 이성무, 「세종과 유교적 국가경영」,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p. 16-22는 그 제목에 의할 경우, 본고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제목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적인 것이다.

73) 鄭潤재, 「세종의 “보살핌”의 정치리더십: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발표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 pp. 11-13

74) 韓民正음의 창제 취지가 법률 및 경제생활의 편리화에 있었다(전성호, 「세종시대 내 부통제 시스템」,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101-107)는 주장도 있다.

졌던 것⁷⁵⁾으로 간주 되고 있다. 따라서 공덕 짓기와 효를 강조한 세종의 불교 신앙은 공공성을 띠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효로 대표되는 유교 사회의 정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종의 불사가 지닌 공공성은 세종 및 왕자들의 역할, 불사에 참가한 유학자 관리들과 그들의 직급 및 참가 계기, 정부기관의 승직 임용, 경비의 출처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1) 국왕

국왕은 조선을 포함한 전통 한국에서 최고 통수권자였으며, 일국의 풍습 또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공인인 세종의 불교 신앙을 그의 사적 활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이 왕비를 위해 베푼 재(齋)는 국가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에 참가한 승려들을 쫓아낸 승정원의 처사를 힐책한 1446년의 기록(28/04/15)은 그 한 증거가 된다. 또한 1449년 세종은 관리에게 명하여 흥천사에서 기우를 하게 하면서, 스스로도 이러한 불사를 개인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31/6/5)하였다. 세종은 기우재를 포함한 불사의 근거를 제사 규정만 가지고는 논할 수 없는 것(31/6/14)이라 하여, 일반 유교 규정과도 별도로 간주하였다.

(2) 왕자

수양대군, 광평대군, 평원대군을 비롯한 세종의 왕자들은 외교

(15/12/12)와 군사(26/10/11)를 비롯,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진양대군 이유는 1445년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고쳤는데(27/02/11), 그는 이후의 세조가 되었다. 대군 시절 그는 사신 접대 등을 통해 이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와 불교와의 밀접한 관계는 1449년의 기록(31/7/1)을 비롯한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1445년의 기록에 의하면, 광평대군도 평원대군과 함께 청계사(淸溪寺)에서 불경을 외웠다(27/04/26). 따라서 세종의 호불 왕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관리

1438년부터 세종이 죽은 1450년까지는 세종과 그의 신하들 사이에 불교를 둘러싼 논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는데,⁷⁶⁾ 세종이 자신의 건강 문제와 그의 왕후 및 왕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 궁전 옆에 불당을 지으려 하자, 유신들의 반대가 거세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1448년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영의정, 좌의정, 대간 등의 고위 관리들 뿐 아니라, 생원들까지도 불당 설치 불가론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1448년 8월 5일에는 수양 대군과 안평 대군에 의해 궁궐 옆에 불당이 설치되었다(30/8/5).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불사에 참가하는 유신들도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좌·우의정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불사 참가자와 그들의 직급을 『세종실록』에

75) 권 오영, 「조선조 왕실 양로연의 추이와 그 의미」,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 과제 학술발표회 『조선시대 嘉禮儀의 종합적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4), pp. 77-79

76) 姜信沆, 「한글 創制의 背景과 佛敎와의 關係」, 『佛敎文化研究』 第三輯 (1992), pp. 9-12

기록된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참가자 및 직급

참가자는 왕족과 관리들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았다: 민건, 정분, 이이손, 조극관, 김종서, 하연, 황보인, 민신, 박연, 이사철, 이정녕, 하순경, 김수온, 안평대군, 정효강, 이계전, 강희안, 김흔지, 성임금, 허후 등.

특히 1449년의 기록에 의하면, 정분, 민신, 허후, 조극관, 이이손은 세종이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 수리 명령을 따랐을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의견 개진까지 하고 있었다(31/4/21). 민건, 하순경, 김수온 및 정효강은 적극적으로 세종의 불사를 도운 이들이었다. 민건은 당시의 수륙제는 부처를 위한 공양이기도 하지만, 조종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순경은 대감으로서의 처음으로 부처에게 예를 표하였으며, 이후로는 승려에 의한 기우제 때 감찰이 부처에게 절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게 되었다(31/6/20). 그리고 김수온과 정효강(1432-81)은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모든 불사는 그들이 담당(31/11/1)할 정도였다.

참가자들의 직급⁷⁷⁾은 대군(정1품), 우의정(정1품), 좌의정(정1품), 승덕대부(종1품), 우찬성(종1품), 좌참찬(정2품), 판서(정2품), 선공 제조(2품 이상), 부윤(종2품), 참판(종2품), 도승지(정3품), 우부승지

77) 『경국대전』(1485)에 의거한 조선시대 관직표에 대해서는 李弘植 博士 編, 『國史大事典』(서울: 三榮出版社, 1984), pp. 2086-2087 참조. 이 관직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지돈녕부사, 승덕대부, 소윤, 선공 제조, 부윤 등의 직급은 『empas 백과사전』(<http://alldic.empas.com>)을 참고하였다.

(정3품), 좌부승지(정3품), 참의(정3품), 부지돈녕부사(정4품), 소윤(정4품), 병조정랑(정5품), 감찰(정6품), 성균 주부⁷⁸⁾(종6품) 등이었다. 따라서 세종의 불사에 참가한 관리들의 직급은 정1품에서 종6품까지로 나타나며, 특히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세종의 불사에 참가한 관리들의 소속 부서(직급)는 종친부(군), 의정부(좌·우의정, 찬성, 참찬), 돈녕부(부사, 부지돈녕), 육조(판서, 참판, 참의, 정랑), 사헌부(감찰), 승정원(도승지, 좌·우부승지), 성균관(주부), 한성부(소윤) 등으로서 당시 조선정부의 중요 부서들이 세종의 불사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실 가족 뿐 아니라, 불사에 참가한 관리, 그들의 직급 및 소속부서 등으로 판단할 때, 세종의 불사가 사적 영역에 머물렀다고는 할 수 없다.

2) 불사 참가 계기

1446년부터 1450년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관리들이 불사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세종의 명령에 의한 경우와 관리들의 자발적 참가의 경우로 구분되며, 참가 불사의 내용은 망자 추선, 불당 짓기, 기우, 치병 기도, 치병 후 감사 등이었다.

세종은 죽은 소헌 왕후를 위해 이영서, 강희안 등에게는 불경을 금자(金字)로 쓰게 하고, 정효강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였다

78) 李弘植, 앞의 사전, p. 2086에 의하면, 주부는 여러 부서에 있는 정6품의 직급이나, 성균관엔 주부가 없었다.

(28/3/28). 또한 세종은 불당을 짓기 위해 정분의 감독 아래 수군 수천 명을 동원시켰으며(30/8/4), 이정녕(31/6/5)과 이사철(31/7/1)은 세종의 명으로 각각 흥천사에서 기우하였다.

특히 병과 관련된 불사가 많았는데, 세종 스스로와 세자의 치병을 위한 행사들이 많았다. 세종은 자신이 아플 때 관리들로 하여금 불당과 사찰에서 공작제와 관음정근을 열게 하고,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 불우 등에도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32/1/22). 세종은 세자의 병 치료를 위해서도 관리들에게 명하여 약사재를, 안평대군 이용에게는 수록재를 행하게 하고, 정효강이 따르게 하였으며(31/11/01), 세자가 아플 때는 치병을 목적으로 여러 신하들을 절집으로 보내 기도를 하게도 하였다(31/12/35). 세종은 관리들로 하여금 불전의 경문과 발문 등도 쓰게 하였으며, 궁궐 내에서는 채식을 하게도 하였다(32/1/4).

세종은 자신과 세자의 치병 감사 의례 개최를 위해서도 관리들을 파견하였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낫자 시어소에서 보공재를 직접 베풀었으며(32/#⁷⁹1/2), 관리들을 보내 그 의례를 베풀게도 하였다(32/#1/5). 세자의 병이 나아갈 때도 보공재를 불당과 흥천사에서 베풀게도 하였으며(31/11/25), 조정 신하를 보내 불우 등에 은혜를 갚는 제사도 지내게 하였다(32/2/9).

(4) 정부 기관

선종과 교종의 사찰 주지를 정부 기관이 임명(29/6/19) 하고 있었

79) #는 윤년을 뜻한다.

다는 점 역시 당시의 불교가 공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 경비

세종의 불사 경비는 왕실 재원에 의했으며, 이는 고려(918-1392)의 전통을 이은 것⁸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왕실 재원도 신하들의 시각에는 국민의 혈세에 의한 것이었다. 1149년의 기록(31/5/20)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세종에 의한 불사는 세종 자신이 공인이었던 점, 호불 왕자들이 정치에 참가하고 있었던 점, 주요 정부 부서의 고급 관리들이 불사에 참가하고 있었던 점, 승직 임명이 정부 소관이었던 점, 왕실 불사 재원도 국민의 혈세였던 점으로 보아 세종의 개인사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2. 세종의 정치적 대응

불교 신앙인으로서 세종은 현실 정치 차원에서 불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⁸¹⁾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의 불사는 공공성을 띠고 있었으나, 그의 불사에 대한 유신들의 저항 또한 거세었다. 그러나 세종은 강력한 왕권⁸²⁾을 바탕으로 불사를 진행하였다. 세종은 1418년 즉위

80) 김종명, 『한국중세의 불교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p. 24-26, 293-295

81) 세종이 불교를 용인한 이유는 당대에도 존재한 불교 신앙에 대한 수요 및 승단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필요성 때문(부남철 2005:190-195)으로 간주되고 있다.

82) 귀족 계급의 존재로 인해 삼국시대 이래 한국의 왕권은 약한 편이었다. 조선시대의 왕권도 양반들에 의한 억제와 균형의 구도 아래 전반적으로 약했으나, 14-15세기

후, 재위 초반기에는 아버지 태종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1425년 이후에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권신의 제재도 받지 않고, 법전의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불사 개최 경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숭불 행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김종명 2009:217). 특히, 대간은 자신들보다 관직이 높은 고관들도 탄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간의 활동은 당시의 권력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기준이 된다.⁸³⁾ 조선 건국 이후 대간의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은 세종대부터였는데, 불교에 관한 한 세종은 대간의 간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종은 자신의 불사에 대한 유신들의 반대에 대해 권력 이양 시도, 거처 옮기기, 관리 파면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1) 권력 이양 시도

세종은 그의 아버지 태종이 그에게 하였듯이, 그의 재위 기간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사를 세자에게 맡기려 하였다(『세종실록』 「총서」). 세종의 선위 시도는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27/1/18) 되었으나, 1445년부터 1449년 사이 세종은 세자에게 왕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수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 선위 시도의 표면적인 이유는 칭병과 개인사가 그 이유였으나, 실제 이유는 자신의 불사에 대한 유신들

의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며(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9-12), 세종 시대는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83) 鄭杜熙, 「世宗朝의 權力構造 - 臺諫의 活動을 中心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世宗朝文化研究 (I)』 (서울: 博英社, 1982), p. 4

84) 鄭杜熙, 앞의 논문, pp. 59-60

의 반대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다.

세종은 세자에게 국정을 맡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1444년부터 1449년까지의 기록(26/2/20)에 의하면, 세종은 국정의 사무를 맡긴 후에도 중대사는 자신이 직접 결재하였다. 더욱이 세자가 상중에 있거나(28/5/8), 병에 걸렸을 때(31/11/14)는 다른 서무도 세종이 직접 결재하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가 죽기 전까지도 인사, 경제, 제사, 의례, 외교, 군사, 형사, 건설, 법제 등을 포함한 공적인 대소사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종의 불사 행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거처 옮기기

세종은 그의 불당 짓기(30/8/4)와 불교의례 개최(31/7/1)를 반대한 신하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또는 그의 정부 수행과 관련, 신하들이 다른 견해를 개진했을 때(31/9/24), 또는 건강 문제(31/1/22)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겼는데, 그가 거처를 옮긴 장소는 임영대군의 집(30/8/4), 금성대군의 집(31/9/24), 효령대군의 집(32/1/22) 등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이나 형의 집이었다.

(3) 관리 파면

세종은 자신의 죽은 왕비를 추모하기 위한 의례에 참석하지 않은 관리들을 파면시키기까지 하였다. 1446년의 기록(28/7/7)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선위 시도, 이어 및 파면 등을 통해 세종은 자신의 불사 행

위에 반대하는 유신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종은 그가 살던 유교 사회에서 스스로 유교 군주임을 자임하고, 조선적 유교화의 틀을 정립한 군주였으나, 세종조의 유교정치는 조선 후기의 도학정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서, 특히 공덕 중심의 세종의 불교관은 당시 유교사회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세종의 불교관은 유교 사회의 신하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으나,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사를 추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사회에서 그의 치국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과 관련된 불전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난 세종의 불교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종의 불교 이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그의 불교관이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교에 대한 세종의 일차적 관심은 교학보다는 인과설에 바탕을 둔 공덕 짓기에 있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유교 사회의 백성들에게 효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인과설에 대한 이해는 초기 불교의 인생관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었다. 세종은 많은 유신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사 행위를 추진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불교관 관철을 위해 선위 시도 등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그

의 불사는 세종 자신의 견해,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직급 및 소속 부서, 재정원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행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의 불교관은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어도 그는 그의 치세 마지막까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일차 자료

- 覺訓. 『海東高僧傳』,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1984;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pp. 89–101
- 金守溫. 『拭疣集』. 『韓國文集叢刊』 9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金英培 編譯. 『釋譜詳節』 上 (서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86)
- 金英培 編譯. 『釋譜詳節』 下 (서울: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86)
- 成倪. 『慵齋總話』. 남만성 역 (서울: 대양서적, 1973)
- [世宗]. 『月印千江之曲』. 南廣祐 · 成煥甲[주해] (서울:螢雪出版社, 1978)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 (1918; 서울: 민속원, 2002)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이차 자료

- Allen, J. Michael. “How Early is Korean Modernity? The ‘Early–Modern’ in Korean Historiography,” *On Historiography of Korea: Methodologies and Strategies*,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6. 19–20), pp. 157–167
- Buswell, Robert E. Jr. “Buddhism Under Confucian Domination: The Synthetic Vision of Sōsan Hyujōng.” In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on Korea*, edited by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134–159
- Buswell, Robert E. Jr., ed. *Chinese Buddhist Apocryph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 Jorgensen, John. “Trends in Japanese Research on Korean Buddhism 2000–2005,”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March 2006), pp. 9–26.
- Kim, Jongmyung. “King Sejong’s Buddhist Faith and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A Historical Perspective,” *Korea Journal* 47–3 (Autumn 2007a), pp. 134–159.
- Kim, Jongmyung. “Korean, Buddhist Influences on Vernacular Literature in.” In *Encyclopedia of Buddhism*,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2004), pp. 439–441.
- Kim, Jongmyung. “King Sejong’s Buddhist View,” presented at the 5th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KSAA) Biennial Conference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2007b, July 12–13)
- Kim, Jongmyung. “Korean Kings’ Buddhist Views: An Examination—From the Fourth to the Tenth Centuries—,” presented at the XV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Emory University, Atlanta, U.S.A., June 23–8, 2008)
- McBride, Richard D., II.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Retrospective and Recent Trend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March 2006), pp. 27–48.
- Mitchell, Donald W. *Buddhism: Introducing the Buddhist Experience*,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Mohan, Pankaj N. “Beyond the “Nation–Protecting” Paradigm: Recent Trends in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Buddh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March 2006), pp. 49–67

- Muller, Charles A.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姜信沆.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1987)
- 姜信沆. 「한글 創制의 背景과 佛敎와의 關係」. 『佛敎文化研究』 第三輯 (영축불교문화연구원, 1992), pp. 1-21
- 고익진. 「법화경계환해의 성행 내력」, 『佛敎學報』 12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5), pp. 171-98
-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1994; 서울: 도서출판 새터, 1995)
- 권연웅. 「세조대의 불교 정책」, 『震檀學報』 75 (서울: 震檀學會, 1993), pp. 197-218
- 권오영. 「조선조 왕실 양로연의 추이와 그 의미」,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 학술발표회, 『조선시대 嘉禮儀의 종합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4), pp. 56-79
- 琴章泰. 「세종조 종교문화와 세종의 종교의식」, 『세종문화사대계 4 윤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pp. 499-632
- 길희성.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상호의존의 윤리」, 『西江人文論叢』 第11輯 (서울: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院, 2000), pp. 51-72
-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배경과 구송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金相鉉. 「朝鮮佛敎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부록 1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 완간기념 학술세미나,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불교』, 『佛敎學報』 제 39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pp. 265-71

- 김자현. 「조선시대 문화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료와 접근 방법 에 대하여-」,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모색』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pp. 119-34
- 김종명.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 발표회,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일), pp. 59-96
- 김종명.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東洋政治思想史』 第6卷 1號 (인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pp. 51-68
- 김종명.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189-224
- 김종명. 「퇴계의 불교관 -평가와 의의」, 『宗教研究』 第41輯 (성남: 韓國宗敎學會, 2005), pp. 121-146
- 김종명. 「팔공산의 약사신앙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대구경북학 연구논총』 제1집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2006), pp. 267-299
- 김종명. 「한국불교사 연구의 일 방법론 모색」, 국제한국사학회 월례 발표회 (서울: 숭실대학교, 2009. 11. 21), pp. 1-15
- 김종명. 『한국중세의 불교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김혜순.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사찰 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第46輯 (서울: 韓國佛敎學會, 2006), pp. 387-419
- 김혜순·백경임. 「어머니의 불교이해도와 집착이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

- 에 미치는 영향」, 『宗教研究』 第57輯(익산: 韓國宗敎學會, 2009년 가을), pp. 253-274
-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전국선원수좌회. 『개정판 간화선: 조계종 수행의 길』. (2005; 서울: 조계종 출판사, 2008)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1999)
 - 木村泰賢. 『原始佛敎思想論』. 朴京俊 譯 (서울: 경서원, 1992)
 - 박병런. 「세종조 정치 엘리트 양성과 인사운용의 특성」,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49-94
 - 朴海鎧. 「己和의 佛敎思想 研究」(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哲學博士學位 論文, 1996)
 - 박현모. 「세종의 공론형성과 국가경영」. 정윤재 외. 『세종의 국가경영』 (서울: 지식산업사, 2006)
 - 박현모. 「태종 이방원의 국가경영: 왕위승계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발표회,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 pp. 97-115
 - 方立天. 『불교철학개론』. 유영희 옮김 (1989; 민족사, 1992)
 - 배병삼. 「세종의 시인발정(施仁發政)의 국가경영: 守領久任策의 도입과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p. 41-75
 - 부남철. 「세종의 국가경영에 있어서 불교와 유교: 신앙과 정치사이의 긴장과 통합」,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p. 175-198.
 - 『불교관계논저데이터베이스 2006』 (서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06)
 - 『empas 백과사전』 (<http://alldic.empas.com>)
 - 李逢春. 「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第五輯(서울: 韓國佛敎學會, 1980), pp. 41-70
 - 『세종연구자료총서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 『세종연구자료총서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 이부키 아즈시.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禪의 역사』. 최연식 옮김 (서울: 대숲바람, 2005)
 - 이성무. 「세종과 유교적 국가경영」,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p. 16-22.
 - 이성무. 「제1장 세종대의 역사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세종 시대의 문화』 (서울: 태학사, 2001), pp. 15-79
 - 이재형.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과 불교」, 《법보신문》(2004-09-29/773호)
 - 李哲敎 · 李東圭 共編. 『韓國佛敎關係論著綜合目錄』. 全3권 (서울: 고려대 장경연구소, 2002)
 - 李弘植 博士 編. 『國史大事典』 (서울: 三榮出版社, 1984)
 - 全觀應. 『佛敎學大辭典』 (서울: 1988; 弘法院, 1996)
 - 전성호. 「세종시대 내부통제 시스템」.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95-144
 - 정두희. 「개인으로서의 '나'의 발견과 朝鮮前期史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모색」,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모색』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 pp. 101-118

- 鄭杜熙. 「世宗朝의 權力構造 - 臺諫의 活動을 中心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世宗朝文化研究 (I)』 (서울: 博英社, 1982), pp. 3-62
- 鄭承碩 編. 『佛典解說事典』 (서울: 民族社, 1989)
- 정윤재. 「세종의 국가경영 연구: 리더십 接近에 의한 世宗時代 新研究」,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27), pp. 16-22
- 정윤재. 「세종의 “보살핌”의 정치리더십: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과 재상의 리더십 결과발표회, 『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 23), pp. 7-20
- 정윤재 외.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 진휴.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에 대한 고찰」, 2008년 제4회 전국학인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 崔正如. 「世宗朝 亡妃追善의 周邊과 釋譜 및 讚佛歌制作」 『啓明論叢』 5 (대구: 계명대학교, 1968), pp. 27-50
- 「[특집] 기복불교를 말한다」, 『불교평론』 제7호 (200년 여름호) (서울: 불교평론사, 2001)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 불교 시책」, 『震檀學報』 25(서울: 震檀學會, 1964. 12), pp. 67-154
- 허용. 「역주 월인석보 서」, 『역주월인석보 1·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pp. 29-41
- 호진. 「초기불교의 선사상과 실천」, 『참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 동화사, [불기 2548년] 2004), pp. 17-33

“King Sejong’s Buddhist View and Confucian Statecraft”

Kim, Jong-my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Sejong’s (1418–50) Buddhist view and his statecraft in Confucian Korea. To this end, the issues of King Sejong and Buddhist texts, the king’s view of Buddhism based on these works, an evaluation of the king’s Buddhist view, and the king’s Buddhist view and his statecraft were analyzed. This research led me to conclude that King Sejong’s Buddhist view, which focused more on creating merit than on Buddhist doctrine, had close relation with his politics in Confucian society; and the king supported by his strong kingship promoted his Buddhist activities, which were official in character, in opposition to anti-Buddhist Confucian subjects. This research hopes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nature of Korean Buddhism in particular, and by extension, East Asian Buddhism in general.

Key Word

meritorious results, view of Buddhism, A Detailed Biography of the Buddha Śakyamuni, King Sejong,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Confucian statecraft

조선후기 불교의 강학 전통과 白羊寺 강원의 역사

김용태
동국대학교

머리말

1. 조선후기 강원 교육과 강학 전통
 2. 호남의 교학과 白羊寺 강학의 특징
 3. 근대 불교교육의 전개와 白羊寺 강원의 역사
- 맺음말

투고일자 2010.3.23 | 심사일자 2010.4.11 | 게재확정일자 2010.4.19